

상반기 카드 일평균 2.3조 급었다

지급카드 이용실적 2조3000억원, 전년동기대비 4.4% ↑ 체크카드 발급장수 1억2900만장, 이용비중 21%로 확대

올 상반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지급카드의 이용실적이 일평균 2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늘어났다. 높은 세제 혜택에 힘입어 체크카드의 인기는 계속됐고 결제액의 소액화 현상도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5일 한국은행의 '2018년 상반기 중 지급결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용·체크·선불·직불카드 등 지급카드의 이용실적은 하루 평균 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이용금액은 420조원에 달했다.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은 일평균 1조41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3% 늘어났다. 냉방용품 등 가구·가전제품(16.1%)과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15.5%), 여행·교통(7.1%)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반면 법인 이용실적은 국제 카드납부 추



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4% 감소한 4170억원에 그쳤다.

체크카드의 인기는 계속됐다. 일 평균 이용실적은 491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신용카드에 비해 세제혜택이 좋은데다 연회비 무

료, 청구할인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한은 측은 설명했다. 발급장수도 1억2900만장으로 신용카드 발급장수(1억200만장)를 웃돌았다. 전체 지급카드 이용실적에서 체

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1.1%로 올라섰다.

카드 결제의 소액화 현상은 이어졌다. 신용카드의 일평균 결제건수는 3488만건, 체크카드는 2164만건으로 지난해보다 6.3%, 7.5% 증가했다. 그러나 건당 결제금액은 신용카드가 4만3782원, 체크카드가 2만2673원으로 지난해보다 0.3%, 2.1%씩 감소했다.

한은은 "주로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편의점, 대중교통 등에서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건당 이용금액의 소액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변화 속도는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소액결제량을 통한 계좌이체 금액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상반기 기준 하루 평균 5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증가했다. 특히 모바일 뱅킹을 통한 결제금액이 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6%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어음과 수표 결제금액은 일평균 20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했다.

뉴스시

광주·전남 주택건설업체 올해 지역 공급량 소폭 감소

올해 들어 광주·전남지역 주택건설업체가 광주·전남에 공급한 주택 물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건설사들은 광주지역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개발지구를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이하 광주·전남도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지역 건설업체의 아파트 주택 공급량은 4689가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지역업체의 타 지역 공급량은 2017년 전체 공급량의 74.85%인 1만5156가구를 기록해

남은 4개월의 공급량을 감안하면 지난해 물량을 소폭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8월 이후 지역업체의 광주지역 공급물량은 4000여 가구로 전망된다.

정부의 다양한 수요 억제책에 따라 수급 불균형이 나타난 광주는 주택 공급량이 줄고 있다.

특히 구도심 재생사업에 따른 이주 증가와 광주공항 이전, 한진공대 설립, 민간공원특례사업, 도시철도 2호선, 빛그린산단 현대자동차 설립 등 각종 호재 속에서 일부 단지들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폭염에 7월 온라인쇼핑액 '역대 최대'

7월 소비의 24.4%...냉방 가전, 음식 배달 판매 '날개'

기록적인 폭염이 한반도를 덮친 지난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냉방 가전 제품 판매와 음식 배달 등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9조4567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7% 증가했다.

전체 규모로 따지면 역대 최대 규모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9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 3월(9조6399억원)과 5월(9조5609억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7월 전체 소매판매액(38조7297억원)과 비교해도 24.4%에 달하는 규모다. 우리나라 소비의 약 25%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 셈이다.

온라인쇼핑 시장이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7월 들어 폭발력을 보인 것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탓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중 폭염일은 15.5일로 1년 전보다 9.1일이 증가했고 열대야일은 7.8일로 1.4일이

늘었다. 이에 냉방 가전제품 판매, 음식 배달 주문, 가정간편식품 판매 등이 크게 늘어났다는 설명이 나온다.

실제 상품군별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보면 음식서비스가 91.2%로 가장 높았다. 음·식료품은 31.2%, 가전·전자·통신기기는 27.4%였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도 매서운 성장세를 이어갔다. 7월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33.5% 증가한 5조9201억원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쇼핑 역대 최대 거래액이다. 증가율은 지난 1월(35.5%)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간편결제 서비스 발전 등에 힘입어 모바일쇼핑 활용도가 높아진 결과다.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에서 모바일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62.6%를 기록했다. 이 역시 역대 최고 수준으로 1년 전보다 5.1%포인트나 상승했다.

뉴스시

저축은행, 대출늘려 흑자세 확대...이자수익 '역대 최고'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 5613억원...전년비 13.8% ↑

올들어 저축은행들은 서민 대출 증가에 힘입어 흑자세가 확대됐다. 올 상반기 이자수익으로 인한 순이익이 역대 최대치에 달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한데다 연내 미 급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돼 서민부담으로 전기될까 우려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저축은행 당기순이익(집계)은 5613억원으로 전년 동기(4933억원)대비 13.8% 증가했다.

이자이익도 2조4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늘었다. 이같은 흑자세 확대는 대출 증가에 따른 결과다.

저축은행 이자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이 기록을 넘어섰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로 올들어 대손충당금전입액이 1174억원 늘었음에도 이자이익이 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41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신과 자본도 늘었다. 올 상반기 저축은행 총 자산은 6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59조7000억원) 대비 7.0% 증가했다.

대출금이 4조원, 현금·예치금과 보유 유가증권 모두 각각 4000억원, 9189억원 늘었다.

자기자본도 지난해 말(6조8000억원) 대비 6.4% 증가한 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 증가로 이익잉여금이 4000억원 늘어났는데다 772억원 유상증지한 결과다.

이같은 규모 확대에도 건전성을 양호한 수준을 이어갔다. 하지만

가계대출 연체율은 증가하고 있어 서민부담 확대가 우려된다.

지난 6월말 기준 총여신 연체율은 4.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4.6%)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4.4%로 지난해 말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연체율이 1.6%포인트 떨어지는데 기인한다.

문제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했다는 점이다. 올 상반기 가계대출 연체율은 4.8%로 지난해 말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가계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모두 각각 0.7%포인트, 0.3%포인트 올랐다.

뉴스시

軍운전경력도 반영...환급액 2억원

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보험료 환급건수는 5857건, 환급금액은 약 2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기간 대비 환급건수(234배)와 환급금액(230배) 모두 증가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보험료가 과다 적용된 경우 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 조회 시스템

을 개설·운영 중이다. 이는 보험료가 과다 환급된 경우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환급대상은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합인합중등금이 잘못 적용돼 과납보험료가 발생한 보험계약자다.

가입자의 과거 운전경력이나 보험가입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데 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된다. 보험사기 피해사고나

대리운전자사고 등은 할증대상 사고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정정 등이 이뤄지면서 할증된 경우도 가능하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aipis.kidior.kr)에서 환급조회 및 신청하면 가능하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1년간 보험료 환급건수와 금액은 각각 25건, 109여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적극적인 홍보 등에 힘입어 시스템 활용하는 이용자가 늘어 환급액도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환급유형별로는 군 운전병 근무로 인한 환급보험료가 가장 많았다.

2억1624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86.2%에 달했다.

이 밖에 가입경력을 추가인정하고 외국체류나 해외운전경력, 보험사기로 인한 합중 등으로 인한 보험료 환급도 발생했다.

최근 과납보험료 환급실적이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사유로 과납보험료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보험사기로 미환급된 합중보험료만도 3300만원으로 추정된다.

뉴스시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